

“30년 진행된 새만금 사업 칼질 조짐 뚜렷”

정동영 전 의원, “잼버리 실패 연장서 새만금 예산 칼질 자체는 심각성 있어”

민주당·전북 정치권에 “새만금 예산 정기국회서 희생양으로 전략 막아야”

정동영 전 국회의원이 “30년간 진행된 새만금 사업을 훼손하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은 22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을 놓고 책임을 전복에 주려는 (전북을)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그런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특히 그 불행이 새만금을 향한 예산으로 뛰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얼마전 집권여당의 논평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권력의 칼자루를 권정권이 새만금을 훼손하려고 하고, 새만금 사업을 칼질하려고 하는 조짐이 뚜렷하다”면서 “잼버리와 관련한 예산 잼버리란 표현은 굉장히 (전북도민에게)

게는)모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만금 사업은 더디지만 한발씩 나아갔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마저도 훼손하려고 한다면 더는 두고보자는 안될 일”이라며 “윤 대통령도 새만금을 전북의 미래라고 나라의 미래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는데 잼버리는 잼버리이고 새만금은 새만금이다. 잼버리 실패의 연장에서 새만금 예산을 칼질 한다는 것 자체는 심각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현재 정치권에서 나오는 새만금을 향한 비난에 경악을 했다고도 했다.

정 전 의원은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호도해도 유분수인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준비지원 부족 책임으로



정동영 전 국회의원이 22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만 물을 수 있다”면서 “잼버리를 통해 (전북은) 새만금을 세계에 홍보하고자 했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홍보는커녕 새만금 사업 자체가 위태롭게 된

상황은 좌시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앙정치에서 전북 정치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면서 “악지는 봉착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대변해주는가. 지금부터는 (전북 정치권과 야당이) 원팀이 되어서 전북의 미래와 전북의 이익을 위해 배수의 진을 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인 민주당과 현 전북정치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정 전 의원은 “전북도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민주당에) 180석을 몰아준 이유가 이럴 때 전북을 지켜달라는 위임이 아니냐”면서 “민주당이 좀더 강해지고 좀 더 헌팅이 되어서 전북을 지켜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촛불로 등장한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 기대, 다른 세상이 올 것이라 기대가 있었는데 과연 다른 세상을 만들었는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은) 철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찰해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전북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도민들에게 반성하고 앞으로 결의하게 결속하게 새출발을 약속하고 돌아오는 정기국회와 예산 국회에서 새만금 예산이 희생양으로 전략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



군산시의회 임시회 29일 개최 추경예산안 등 심의·의결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9일 제258회 임시회 개최를 시작해 10일간의 일정으로 하반기 의정활동에 본격 돌입한다.

군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제258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오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과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군산시의회 홍보 등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영란·서동완·송기숙·한정봉 의원의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포함 11건의 조례안 등 의안 12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포함한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산시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9월 7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안건들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특히 추경예산안이 적재적소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민주당,尹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상습적 국회 무력화”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에 대해 “상습적 국회 무력화”라고 밝혔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방송 장악을 위한 윤 대통령의 폭주에는 브레이크가 없다”며 “이제는 국회를 아예 패싱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으면 곧바로 이 후보자를 임명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속셈이 눈에 보이듯 뻔하다”며 “발의 요청이지 이동관을 꼭 임명하고 말겠다는 대통령의 선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16번째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뜻”이라며 “윤 대통령의 상습적 국회 무력화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윤 정부의 국정 운영은 국회의 감시와 견제라는 기본적인 헌법 이념조차 부정하며 ‘검사로 견제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잘못된 태도를 대통령이 돼서도 고칠 생각’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뉴스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 구성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새만금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 단장(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22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새만금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 구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잼버리와 새만금 SOC는 별개... 정쟁 안타깝다”



이수진 국회의원 전북도당 대변인 같은 당의 ‘잼버리’를 새만금 SOC 사업 위해 악용 내용 반박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전북책임론’과 동시에 새만금 SOC 사업을 향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잼버리와 새만금 SOC사업은 별개”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수진 국회의원 전북도당 대변인(사진)은 22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계획과 잼버리는 별도로 봐야 한다”면서 “현재

누구랄 것도 없이 (잼버리를 놓고) 정쟁에 빠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 대변인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같은 당인 국민의힘의 ‘잼버리를 새만금 SOC 사업 위해 악용해 잼버리만 관심있다’는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과 닮았다.

이 대변인은 “잼버리를 모르는 전북도민들마저 잼버리 사태 이후 악마로 비추고 있다”면서 “(잼버리를 두고) 전북도민을 폄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잼버리 사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원인과 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맹공... “비상행동 나설 것”

“尹, 일본 총리에게 왜 이야기하지 못하나... 역장 무너져”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점 발표와 관련해 ‘한·미·일 정상회의로 오염수 방류를 받아들이고 동해를 일본해로 묵인하는 대신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밝혔다.

박광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이 오늘 역사에 후회를 남기는 결정한다. 우리 국민의 89%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코앞에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은 최소 6달 동안 해양투기를 보류하고 한일 양국의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진행하는 등의 내용 담은 7가

지 해법을 제시하고 합리적 해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또 해법을 요구해 왔다”며 “일본 정부 해양 투기가 가져올 해양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비상행동,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 위축을 최소화하는 대책 등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춘숙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4일간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담 비롯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입장을 수차례 표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반구도 하지 않은 결과라”며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한국 정부

가 묵인함으로써 방류되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수십년간 해양 생태계에 예측 불가능 위협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장은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바다에 버림으로써 이웃나라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며 “왜 윤석열 대통령은 핵오염수를 방류하면 안 된다고 일본 총리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느냐”고 반문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받아들이고 동해를 일본해로 묵인하는 대신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나. 역장이 무너진다”고 꼬집었다.

/뉴스

Heinrich Heine | R.Schumann | G. Caccini | F. Fatti | J. Brahms | S. Sondheim | Ennio Morricone | 윤막준

2023. 8. 25(금) 7:30pm

문화공간 이룸 ART SPACE

티켓 | 전석 4만원
할인 | 조기예매 50% 할인 / 12명 이상 단체예매 50% 할인

예매 | (네이버 예약) '전주 시민을 위한 다락樂 콘서트' 검색 후 예매

문의 | 카카오톡 '문화공간이룸' 06.3223-5323